# 총지신문

총기 52년 **2023년 3월 1일** 월 간 발 행

제보 news@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우인(최명현)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7년

제 280 호

### 대통령 초청 불교도 대법회 '세계가 한 송이의 꽃'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불교리더스포럼이 2월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불기 2567년 대한민국불교도 신년대법회'를 봉행한 가운데 통리원장 우인 정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나란히 자리했다. 사진 제공=대한불교조계종 〈관련기사 2면〉

### 튀르키예 지진 피해 이재민 돕기 성금 모연

오는 12일까지, 튀르키예대사관 전달 예정

불교총지종(통리원장: 우인 정사) 이 튀르키예(구 터키, Republic of Türkiye)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 재민 돕기를 위한 성금 모금에 나 섰다. 종단은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15일 전국 사원에 공문을 긴급 발송해 긴급재난 구호 모연의 취지를 밝히고 교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공문에서 종단은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피해 국민들 이 하루속히 재난을 극복하고 마음 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지심으로 서 원한다."고 밝히고, "종조 원정 대 성사님의 중생구제와 불국정토의 건설이라는 대원에 의지하여 부처 님의 대자대비심으로 어려운 이웃 들을 보듬어 안고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물심양면으로 돕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 종조 원정 대성사 법어 중 "보 시에 세 가지가 있으니 식시(食施) 와 재시(財施)와 법시(法施)이다. 식시는 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요, 재시는 가난한 사람에게 재 물로서 도우고 국가 사회의 복지 사 업에 희사하는 것이요, 법시는 모든 중생을 부처님 법으로 인도하는 것 이다. 인간은 사회성(社會性), 연대 성(連帶性)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남을 도우는 것이 곧 자기를 도우는 것이 곧 자기를 도우는 것이다."를 인용해 교도들이나서서 마음과 마음을 서로 나누어용기를 전하고, 내 자신의 복덕을증장하는 희사가 되기를 권선했다.모금한 재난 기금은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을 통해 튀르키예대사관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 남부와 시 리아 북부 국경 지역에 규모 7.8의 강진과 여진으로 건물과 가옥이 무 너지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참극 이 일어났다. 튀르키예 재난관리국 은 지난 21일 현재 2주일 뒤 발생한 규모 6.3의 추가 지진으로 누적 사망자가 총 4만 8천 명을 넘었다고발표했다. 현재 대부분의 피해 지역에서 구조 작업은 종료됐고, 튀르키예 카흐라만마라슈·하타이 등 2개주에서만 생존자 수색이 진행되고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돕기 성금 모금은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며, 각 전국 사원 또는 계좌 우리은행 1005-503-240942(예금주: (재)불교 총지종유지재단)으로 입금 시 사원 명과 이름을 기재(예: ○○사 홍길 동,○○사 신정회)하면 된다.

박재원 기자

### 법수원 지수 입적

3월 23일 광주 법황사 49재 봉행





故 법수원 지수

광주 법황사 초대 주교로서 일 평생 중생교화에 매진해온 법수 원 지수가 2월 3일 세수 86세, 법 납 41세로 입적했다. 법수원 지 수는 1982년 중앙교육원 아사리 과정을 수료하고 전법관정수계 를 받은 후 승직에 올랐다.

1989년 제5대 중앙종의회 의 원과 원의회 의원, 2002년 사감 원장, 1994년 종정자문위원회 위원, 1996년 충청전라교구 교 구장 등 종단 내 주요 소임을 두 루 맡아왔다.

특히 1983년 원덕서원당으로 불렸던 광주 법황사 개설 후, 초 대 주교로 임명받아 20여 년간 수행 정진하며 법황사를 진언밀 교도량이자 호남지역 밀법포교 의 중심지로 이끌었다.

또한 광주민주항쟁 당시 희생 된 영가들을 위한 1,000일 불공을 시작으로 학생회, 청년회, 자 성학교, 신도회 등 여러 신행단체 를 조직 및 운영하며 대중 속에 들어가 교화 활동에 전력하였다.

법수원 지수는 진언행자로서 한결같이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 게도 이로운 '자리이타'행을 몸 소 실천해오다 지난 2006년 기 로원 진원에 들었다.

빈소는 전남 영광 법성장례식 장에 마련돼 사흘간 통리원장으로 봉행됐다. 장의위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한 스승과 유가족이 함께한 가운데 5일 오전 고결식 을 마지막으로 법수원 지수 영 식의 왕생성불과 구경성불을 서 원하며 회향했다. 49재는 오는 23일 광주 법황사(주교: 인선 정

김상미 기자

종/조/법/어

부처님께 불공하는 것은 무슨 뜻으로 하는가. 내 마음을 닦고 밝히는 법을 세우려고 한다. = 지면안내

4면 총지 돋보기/진호국가불공과 수호국계주진언

4면 함께 읽는 종조법설집/입교개종의 정신

5면 이달의 법문/ 실보사 혜원정 전수

6면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17화〉



### 비로자나부처님 장엄한 빛으로

규모 4m 높이, 봉축 대형등으로 조성 중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교주 비로자나부처님을 장엄등으로 한창 제작중이다. 한국전통등연구회 (대표: 백창호)가 현재 디자인(위 그림)을 마친 상태이며, 높이 4m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비로자나부처 님은 오는 연등회에서 대자대비의 큰 빛으로 화현하여 세상에 나투신다

### 내마음의 등불

법천사 화령 정사

#### 배움이 없는 사람은

배움이 없는 사람은 늙은 황소와 같다. 몸은 살찌고 나이가 들어도 그의 지혜는 늘어나지 않는다

〈담마빠다 152게송〉

'내 마음의 등불'은 스승님들이 평소 마음에 새기고 계신 지혜와 말씀을 릴레이식으로 소개합니다. 법천사 화령 정사님은 총지사 록경 정사님을 지목하셨습니다.

### 총기 52년 상반기 49일 불공 입재

불교총지종 전국 각 사원에서 2월 19일 상반기 49일 불공 입재에 들어갔다. 국태민 안, 조국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진호국가불 사로 1년에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49 일 동안 정진한다.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 고 자녀 잘 되기 불공을 병행해야 된다.'며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 제정한 총지종의 특 별기도 중의 하나다. 상반기 49일 불공은 4 월 8일에 회향한다.

사진=총지사 서원당 박재원 기자

### 종립 동해중 새 학기 새 단장

종립 동해중학교(교장: 송인근)가 새학기 를 앞두고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학교의 대공사를 마무리했다.

학교는 부산시 교육청으로부터 총 금액 24억 원이 넘는 지원을 받아 낡은 교사에 대한 해체와, 대대적인 보수와 수리, 부설 시설에 대한 신규 증축과 스탠드 개수를 포 함한 인조 잔디 운동장 조성을 끝내며 2023 학년도 새 학기에 돌입했다.

사진=동해중학교 제공



### 신규 예비스승 시무 교육 실시



총지종의 스승이 되기 위한 시무 1차 교육이 지난 2월 6일부터 8일까지 역삼동 본산 종지사에서 진행됐다. 동리원장 우인 정사의 '스승의 사명'을 수제로 한 강의를 시작으 로 설법실수, 육자의궤, 종조법설집, 시무의 할 일 등 록경, 승원 정사, 법수연, 보명심 전수 등이 강사로 나서 교육을 마쳤다. 종단의 시무교육은 총 2년 과정으로, 기본과정 7 개월과 나머지 기간은 심화과정으로 진행된다.

### 학교법인 관음학사 206차 이사회 개최



학교법인 관음학사 종립 동해중학교 제 206차 이사회가 지 난 2월 15일 동해중 학교 법인실에서 열 렸다. 이날 이사회는 2022년도 학교회계 5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법인과 학교 회계 본 예산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농해숭 학교는 신임 화학 교사에 부산대학교 사범 대 화학교육을 전공한 김진원 선생을 임용 했다.

### 지난달 6일. 불교중흥과 국태민안 서원

님)와 불교리더스포럼(대표: 이기흥)이 는 "불자들은 상생과 화합으로 많은 이 주최하는 '불기 2567 대한민국 불교도 들이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신년대법회'가 지난 달 6일 서울 강남구 있도록 이끌어 가야한다."며 "부처님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5년 만에 봉행된 이날 법회에는 통리 바란다."고 말했다. 원장 우인 정사와 총무부장 록경 정사 를 비롯한 30개 종단 대표들과 불교계 주요단체장 등 사부대중 700여 명이 참 석했으며,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주호 영 국회의원 등 정계 인사들도 함께 자 리했다.

행사는 진우 스님과 윤석열 대통령 내 외가 열암곡 마애부처님께 헌등하며 시 작됐다. 이어 사부대중 일동은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대한민국의 어려움이 해 결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부처님께 신 말했다. 년하례를 올리고 새해 안녕을 기원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은 신년 인 사를 통해 "고통 속에서 평안과 평화를 찾는 한국불교의 전통이 오늘 날 꼭 필 요한 때이다."라며 신년대법회가 새해 의 희망을 밝히는 자리가 되기를 발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 했다. 불교리더스포럼 이기흥 상임대표 가르침으로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길

> 진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현시대에 부처님의 정법을 따르는 후손은 선대의 호국불교와 민족문화의 계승으로 이 시 대에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세 우기' 와 'K명상' 불사에 대한 정부 및 국민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에서 "불 교계의 호국안민, 동체대비 정신을 되 새겨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날 법회는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 사가 사부대중의 서원을 모아 신년발원 문을 대표로 낭독하고, 각 종단 대표자 들과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함께 길이 6.4m 화합 케이크를 커팅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 "상락아정의 가르침이 곧 행복의 길"

2월 8일, 국회정각회 계묘년 신년법회 봉행



국회 불자의원 모임인 국회정각회 신년 법회가 지난 달 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 서 봉행됐다. 행사에는 통리원장 우인 정사 와 총무부장 록경 정사를 비롯해 조계종 총 무원장 진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 님,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등 한국불교 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 주요 임원진과 주 호영 의원, 이원욱 의원, 이헌승 의원, 김진 표 국회의장 등 정각회 소속 여야 불자 국회 의원들이 함께 했다.

또한 조계종 중앙신도회장과 교계 언론 대표 등 불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 단에서는 서울경인교구 신정회 박정희 지 회장, 총지사 신정회 최영아 회장, 백귀임 총무가 동참했다.

이날 법회는 정각회 조기열 사무국장의 사회와 조계종 사회국장 현우 스님의 집전 으로 시작됐다.

진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스스로 청정하 면 항상 즐겁다는 상락아정의 가르침이 곧

행복의 길이기에 국민 모두가 쉽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선(禪)명상을 보급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천년 동안 넘어져 계신 경주 남산 의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셔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겠다."라며 '선명상 보급 및 프로그램 개발' 과 '천년을 세우다' 종책 사업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주호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전 세계는 전쟁과 지진 경제난에 허 덕이고 있다. 오늘 신년법회 자리에서 우리 불자국회의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국민에게 봉사할지 생각했으면 한다."면서 상생과 협 치의 국회가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뜻 을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 또한 축사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부처님의 화쟁과 자타불이의 정 신으로 화합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 을 것"이라며 코로나 상황과 이태원 참사 등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지친 국민을 보듬 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선 불교계에 감 사의 뜻을 표했다.

이와 함께 국회정각회 간사 이수진 의원 이 사부대중을 대표하여 발원문을 낭독했 으며, 전반기 회장으로 단체 발전에 노력한 이원욱 명예회장에게 공로패가 전달됐다.

김상미 기자

# 부산 성화사, 다함없는 정진과 참회로 염송삼매에 들다

#### 수요일 정진불공 200회

### 한 사람의 발심으로 매주 빠짐없이 4년 간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력을 빌려 발원 하옵나니 원컨대 진언행자가 뜻하는바 모 든 소원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지심으로 서 원합니다."

주교 금강륜 전수의 발원을 시작으로 지 난 2월 8일 부산 성화사 서원당에서는 수요 일 정진불공 200회가 봉행됐다. 2019년 4 월부터 시작한 수요일 정진불공은 2021년 3월 100회를 지나 오늘을 맞이했다.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는 날이나 폭염 과 뙤약볕에 들끓는 날에도, 코로나로 병들 어 지친 나날이 이어져도 '옴마니반메훔'은 그야말로 다함이 없었다. 한 사람의 발심으 로 시작한 정진은 두 사람이 곧 세 사람이 되고 최고령 이종임 교도 등 10여 명을 넘 어섰으며, 진언도량의 염송정진은 멈출 날 이 없었다. 정진의 중심에는 언제나 금강륜 전수가 죽비가 되어주었다.

이날 불공정진은 오전 10시 불공을 여는 스승의 발원에 이어 자성일 공식불공과 마 찬가지로 훈향, 참회가, 오대서원 후 준제관 음법과 육자진언을 염송하는 법요를 갖췄 다. 특히 동참자들의 간절한 항마합송은 보 리심과 환희심을 절로 일으키며 마치 염송 삼매의 경지에 오르는 듯했다.

아울러 찬불가 부르기, 합동 책 읽기, 천 수경 독경 등 신심을 증장하고 불법을 외호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불심을 키워갔 다. 동참자들은 이 시간을 통해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불공잘해라」를 완독했 고, 이날은 「정통밀교 불교총지종」을 97 페이지까지 읽었다. 최근 시작했다는 '국민 체조'는 2시간여 정좌로 굳어진 몸을 깨우 기에 충분했다.

금강륜 전수는 "한 분의 발심으로 시작 되었는데 어느덧 200회까지 오게 됐다."며 "불공행자들의 마음이 모두 편안해지고 일 체 서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 을 것"이라고 굳은 다짐을 보였다.

처음으로 정진불공을 발심한 허태연 신정 회장은 "코로나로 사업이 힘들어서 함께 기 도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며 "세상사 가 흐름에 따라가지만 정진할수록 신심이 일어나고 보살님들과 함께 지내니 늘 마음 이 편하다."고 전했다.

류춘득 총무는 "집에서는 혼자 책읽기가 어려운데 종조님 일대기를 다 같이 읽으며 눈물도 흘리고 우리 법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됐다."며 "내가 누구를 탓하랴, 내가 전생 에 다 지은 업이다 생각하며 정진하니 만사 가 행복하다."고 말했다.

성화사의 이번 정진불공이 다시 교화의 불씨가 되어 종조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인 '시시불공(時時佛供) 처처불공(處處佛供), 생활시불법(生活是佛法) 불법시생활(佛法 是生活)의 진리가 들불처럼 번져나가기를 서원해 본다. 동참문의 051-254-5134

부산 성화사=박재원 기자







### 지혜의는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1년

### 양국 모두 공산권 국가, 슬라브족의 나라 미중 경제대국 간 대결구도로 예측 이어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을 맞 점입니다. 이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소수 의 전문가들에게는 그 가능성이 예측되었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은 1, 2차 대전의 충격으로 2차 대전 이후 새로운 전쟁을 피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동서 냉 전의 여파로 전 세계의 여러 지역이 국지 적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 고슬라비아가 해체되면서 잠복해있던 민 해 12월에 소련이 해체된 후 무려 30년이 났습니다. 이 두 전쟁의 공통점은 모두 공

과거 동구권은 폴란드에서 유고슬라비 지만 실제 전쟁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아에 이르기까지 헝가리나 루마니아를 제 외하고 대부분이 슬라브족 계통의 나라였 습니다. 종교도 러시아 정교회가 다수였고 소련 해체 이후에는 세계에서 정교회 신자 가 가장 많은 나라 1, 2위가 러시아와 우크 라이나입니다. 같은 슬라브족으로 언어도 었지만 유럽과 북미는 비교적 평온한 시기 유사하고 종교도 같은 두 나라가 전쟁을 벌 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1년 유 이게 된 배경은 냉전시대의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유럽경 족 문제가 드러나 전쟁이 일어났고, 같은 제공동체에 가입하였고 군사동맹체인 나 토(NATO)에까지 가입하려고 하지만 이를 지난 2022년에 와서야 러·우전쟁이 일어 군사적 위협으로 느낀 러시아가 전쟁을 일 으킨 것입니다. 사실상 미국을 중심으로 한 산권 국가라는 점과 슬라브족의 나라라는 나토에 우크라이나까지 가입하면 미국의

군사력이 모스크바 가까이까지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에 러시아가 반발한 것이죠. 이 러한 미국의 행위가 러시아가 러·우전쟁을 일으키도록 자극한 측면이 있습니다.

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러·우전쟁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세계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등의 이유 로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심 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도 GDP에 서 중국은 18조 달러이고 러시아는 2조 달 러로 중국이 러시아의 9배에 달합니다. 우 리는 과거 소련이 미국과 세계 패권을 놓 고 대립하던 냉전시대를 생각하고 여전히 러시아를 미국에 맞설 나라로 생각하는 경 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핵무기를 제외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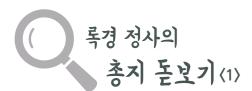
든 격차가 존재합니다. 러시아는 전략물자 를 포함한 많은 부분에서 중국에 의존하여 다. 19세기 말부터 본격화한 서구 제국주 전쟁을 수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러· 의의 침략으로 전통 사회가 와해되고 사상 우전쟁은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로 옮아 적 기반이 와해되었지만 1세기에 걸친 노 가는 추세로 보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대만 력 끝에 경제적 성장으로 과거의 영화를 되 침공을 핑계로 일본에서 대만과 필리핀을 찾는 중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표방하 거쳐 대 중국 봉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는 중국이 전 세계에 500개에 달하는 자국 결국 세계 1, 2위의 경제 대국간의 대결구 도로 재편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 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19세기 중반까지도 청나라 그런데 러·우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주목 가 전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를 넘었습니다. 인도의 무굴제국이 20%정 도로 두 나라의 경제 규모가 전 세계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습니다. 아마 21세기 후반에 가면 중국은 물론 인도마저 미국을 앞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전 세계 의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은 치열하게 경 은 중국, 일본, 베트남과 동아시아 문명권 을 형성해왔습니다. 언어적으로는 상이하 지만 한자라는 문자로 서로 의사소통이 가 능했고 유교와 불교라는 종교를 공통분모

러시아는 미국을 따라잡기에 극복하기 힘 로 하였으며 일본이 약간 예외이지만 강력 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공유한 문명권입니 의 문화를 전파하는 대외 기관의 이름을 공 자학원(孔子學院, Confucius Institute)으로 했다는 것이 주는 의미를 헤아릴 필요가 있 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 대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강력한 경쟁대상을 약화시키는 세 계전략을 구사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 련이 해체되었는데 그 빈자리를 중국이 메 워오고 있었던 것이죠. 미국과 중국 두 나 라가 전쟁과 같은 파국은 피하겠지만 국지 적 대리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하고 그 쟁을 벌이고 있는 중인 것이죠. 사실 한국 가능성이 응집된 곳은 동아시아에서 한반 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러시아 우크라이 나 전쟁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칼럼리스트 김태원



### 진호국가불공과 수호국계주진언 옴훔야호사



금강계만다라

'옴'은 '귀명'의 뜻이고.

'훔'은 '일체 마군을 항복'시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야'는 승리, 성취를 뜻하며,

'호'는 환희한 마음으로 장애를 극복 한다.

'사'는 밝고 큰 지혜를 의미하고 있다.

총지종은 해마다 두 번 '나라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불공'을 49일간 올린다. 이를 '진호국가불 공'이라 한다. 진호국가불공은 '외 적의 침입이나 환란으로부터 나라 를 지키기 위하여 행하는 불교의 의식'이다.

우리나라 불교는 불교가 처음 전 래 되었던 삼국시대부터 호국불교 의 면모를 보여 왔다.

『인왕호국반야바라밀다경(仁 王護國般若波羅蜜多經)』 을 강설 하는 '백고좌강회(百高座講會)나 팔관회(八關會), 신라의 밀교승인 명랑법사가 문두루비법으로 당나 라 군사를 물리쳤던 일이나 『수호 국계주다라니경(守護國界主陀羅

尼經)』에 의한 진호국가불사 등 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 의한 호국불사는 신라 이후 고려 때에도 상당히 번성하였던 불사였

이후 오늘날 현대 한국밀교의 중 흥자 종조 원정 대성사는 호국불교 정신을 계승하여 창종 이래로 매년 상, 하 반기로 2회에 걸쳐 각기 49 일 동안 이 진호국가불사를 올리고 있다. 상반기 진호국가불공은 2월 20일에 시작하여 4월 8일에 마치 고, 하반기는 5월 28일에 시작하여 7월15일에 마친다.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 근거 천왕의 근거가 되고 있다.

하여 진호국가불공을 행하고 있다. 이 경전에 근거하여 비로자나불의 결인인 '지권인'을 결하고 수호국 계주진언인 '옴훔야호사'를 외우고 있다.

이 의궤가 진호국가불공의 핵심 이다. 그리고 또한 이 불공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오불을 비롯한 사보살, 사대명왕과 사대천왕의 명 호를 관송하는 것이다. 이를 진호 국가불공의 만다라관이라고 한다.

총지종에서 진호국가불공 시에 칭명하는 오불은 금강계만다라에 등장하는 오불이다. 『수호국계주 다라니경』에는 금강계만다라의 오불이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결 인을 행할 때는 금강계만다라의 비 로자나불의 '지권인'을 결하는 것 이다.

금강계만다라에는 중앙의 비로 자나불을 중심으로 동방에 아축불, 남방에 보생불, 서방에 아미타불, 북방에 불공성취불이 자리 잡고 있 다. 이들 사방의 네 부처님을 친근 하고 있는 보살이 금강살타보살, 금강보보살, 금강법보살, 금강업보 살이다. 이를 호위하고 있는 수호 신이 동방에는 항삼세명왕, 남방의 군다리명왕, 서방의 대위덕명왕, 북방의 금강야차명왕이다. 또 그 바깥쪽에서 호위하는 수호신이 사 천왕이다. 동방의 지국천왕, 남방 의 증장천왕, 서방의 광목천왕, 북 방의 다문천왕이다.

밀교의 오불사상은 동서남북의 방위에서 시작된다. 그 방위는 곧 왕이 살고 있는 성곽을 중심으로 한 동서남북의 사문에 근거하고 있 다. 만다라의 태생이 고대 인도의 왕성을 본 뜬 것이기 때문이다. 왕 성의 사방문에는 왕을 호위하는 장 수가 있는데, 사찰의 입구에서 불 총지종도 밀교의 호국경전인 법을 지키고 있는 사대천왕, 즉 사



### 입교개종의 정신

#### 입교개종(立敎開宗)의 정신(精神)

법신비로자나불(法身毘盧遮那佛)을 교주(敎主)로 하고 육자 대명(六字大明)을 본존(本尊)으로 하여 대승장엄보왕경(大乘壯 嚴寶王經)과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을 소의경전(所依經典)으로 하고 태금양계(胎金兩界)의 모든 경 궤(經軌)를 보조경전(補助經典)으로 하며, 삼밀(三密)과 육행 (六行)을 수행의 덕목(德目)으로 하고, 「당상즉도(當相卽道)」 「색심불이(色心不二)」의 원리(原理)에 입각(立脚)하여 복지쌍수 (福智雙修)로 사리(事理)를 구현(具現)함으로서 현세정화(現世 淨化)와 즉신성불(即身成佛)의 윤원대도(輪圓大道)를 얻게 하 고 단순했던 과거와 복잡한 현대에 재생의세(濟生醫世)하는 법 이 다름으로 특히 이원진리(二元眞理)를 밝혀서 물심병진법(物 心併進法)을 가르치는 한편 시시불공(時時佛供). 처처불공(處 處佛供)법으로 생활시불법불법시생활(生活是佛法佛法是生活) 의 진리를 체득(體得)케 하는 동시에 활동(活動)하며 닦고, 닦 으면서 활동하는 것을 실천(實踐)하게 하는 방편(方便)을 세움 으로서 교상(敎相)이 확립(確立)되고 입교교의(立敎敎義)를 이 에 두었다.

오랫동안 불교방송에서 일했지 수행하고 실천해야 할지 분명하게 만 불교총지종을 가까이에서 만난 건 최근의 일이다. 창종 50주년을 기념하여 종단 역사를 취합하고 정 리하는 일을 맡으면서 처음으로 깊 숙이 들여다보게 되었다. 신선했다. 종단을 일구는 과정은 대승보살의 서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스승과 교도들의 헌신과 애종심은 감동적 이었다. 특히 원정 대성사의 말씀과 일화들은 울림이 컸다.

한자어가 많고 세로로 써 있어 집 중력이 필요했으나 결과는 명쾌했

제시하고 있었다. 일목요연하면서 도 깊이 있고 친절한 내용에 남몰 래 감탄도 많이 했다. 너무 많은 이 들이 그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것 같 아 안타깝기도 했다. 언제 한 번 찬 찬히 탐독해보겠다고 마음먹고도 게으른 탓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 었는데 원고를 써달라는 청을 받았 다. 기다렸다는 듯이 원정 대성사 의 원력과 사상이 고스란히 담겨있 그때 『종조법설집』을 만났다. 는 『종조법설집』의 뜻을 헤아려 보면 어떻겠냐고 했다.

걱정이 없는 건 아니다. 총지종 그대로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수행 다. 밀교의 정신과 총지종의 철학 교도도 아니고 전문적인 학술연구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을 명확하게 일러주고, 우리 불자 가도 아니라 부족한 게 많으면서 괜 맑히고 나의 하루하루를 밝힐 것을 들이 어떤 이상을 가지고 어떻게 한 욕심을 부리는 걸지도 모른다. 다짐해본다.

무엇보다 원정 대성사께서 몸소 관 행하여 깨치신 그 깊은 뜻을 온전히 밝히는 데는 한계가 많을 테니 조심 스럽기도 하다. 다만, 불자의 한 사 람으로서 원정 대성사의 말씀을 가 슴으로 받아들여 보자고 용기를 내 기로 했다. 나름의 시선으로 『종 조법설집』을 읽고 해석하고 음미 해보면서 밀교와 총지종을 제대로 공부하는 계기이자 수행의 디딤돌 로 삼고자 한다.

『종조법설집』은 본 내용에 앞 서 '입교개종의 정신'으로 시작한 다. 교도라면 입이 닳도록 되새겼을 내용이니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사실 감히 덧붙일 말씀이 어디 있겠는가?

핵심 단어가 대부분 한자로 된 불 교용어인 데다 총지종의 근본 사상 과 지향을 하나의 문장에 모두 담고 있어 처음에는 뚜렷하게 다가오지 않는 게 사실이다. '입교개종의 정 신'을 조목조목 풀어놓은 법문말씀 이 『종조법설집』 전체의 내용이 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는 말자.

복과 지혜를 같이 닦아 현세를 정 화하고 이 몸 그대로 성불한다는 종 단의 근본 지향과, 삼밀과 육행의 수행덕목, 당상즉도·색심불이의 원 리,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에서 재생 의세하는 법 등은 『종조법설집』 곳곳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질 테 니 그 의미는 앞으로 하나하나 만나 게 될 것이다. 나의 이해와 해석이 원정 대성사의 본뜻에 얼마나 가닿 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간곡 하고 간절한 마음만은 느낄 수 있으 리라 믿는다.

생활이 곧 부처님법이고 부처님 법이 곧 생활이 되는, 일상의 모습

# 불교총지종 가정희사고



사이즈 가로 25cm

세로 15cm

높이 15cm

정가 60,000원

문의 02)552-1080

불교총지종 통리원

가정희사고가 제작되어 보급 중입니다. 희사공덕으로 서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불에 공(供) 할 것은 아무데나 못 쓸지라 정성으로 정시(定施)하 고, 때로 차시(差施) 모은 것은 한 분 밖에 다시없는 법신불에 희사한 다.<중략>

정시(定施)는 제독(除毒)이며 또 곡식을 심는데 밑거름과 같으며 차시(差施)는 웃거름과 같이 그 때마다 속히 그 서원을 성취하고 절량(絶糧)은 생미(生米)로써 때때로 불공함이니 각자가 이것을 실천하여 법신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보면 다 진실로 자기에게 곧 실지 묘과(妙果)가 있는 것을 알지니라.

〈종조법설집 보시와 법시 편 중〉



#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에 대한 나의 첫 기억은 어머니를 따 라 찾아갔던 절에서 시작합니다. 그곳에 있 던 불상을 바라보며 그 당시 내가 서원하던 바를 간절히 빌던 나의 어린 모습과 그런 어 린 나의 머리 위로 쏟아지던 형형색색의 등 불 불빛들. 그 당시의 나는 불상과 등불이 나 의 서원을 이루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지나 한 종단의 스승이란 자 리에 있게 된 지금의 나는 불상과 등불이 나 의 서원을 이루어줄 것이라 생각하지도, 또 그것이 불교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지금의 나에게 있어 불교란 무엇인가 혼자 가만히 자문해보면, 불교란 이고득락. 즉 괴 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기를 서원합니 다. 여기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란 무엇 일까요? 우리는 모두 자신이 바라는 일이 이

것입니다. 법륜 스님도 스승님이 어디서 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바쁘다고 하느냐 는 말에 충격을 받아 정말 나는 어디서 와 어 디로 가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스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왜 우리네 삶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살아지지 않는지 의문을 가져보면 그에 대한 답을 찾기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괴로움 속에 빠지는 우리네 삶은 비단 나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윗대, 즉 부모님 세대 또 그 이전 세대까지 선대로 계속하여 거슬 러 올라갑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부모와 형 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학습된 알음 알이 즉, 이것이 크다 저것이 작다, 좋다 나쁘 우리는 누구나 현실 속에서 느끼는 모든 괴 다, 네 것과 내 것, 관계 속에서 형성된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 이미지, 생각, 느낌, 행동 이 모든 것을 통해 나의 업을 만들어갑니다. 또한 우리는 선대 유전자로부터의 습과 몸을 66

이것이 크다 저것이 작다. 좋다 나쁘다, 네 것과 내 것, 관계 속에서 형성된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 이미지, 생각, 느낌, 행동이 모든 것을 통해 나의 업을 만들어갑니다.

"

이 아니라 실제의 행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 입니다. 습이 바뀌어야 불교가 추구하는 이 고득락을 이룰 수 있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괴로움의 원 인인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돈과 명예, 좋은 대학이나 직장에의 합격, 좋은 집 등 이처럼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해 집착하는 습인 마음을 알아 차린다면 그 집착하는 마음이 괴로움의 원 인임을 알게 되고 곧 그것이 무상임을 깨닫 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습을 알고 그 습의 변화를 통해 서 어떤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서원은 하 되, 이루어지든 그렇지 못하든 그 결과에 대 한 집착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것이고 불교 란, 이와 같은 자유로움의 이고득락이 아닐 까 생각합니다.



실보사 혜원정 전수

### 내가 형성한 습이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으로 작용 수행으로 습을 바꾸어 갈때 이고득락 이룰 수 있어

루어지면 행복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행복 은 잠시일 뿐 우린 또다시 다른 것을 얻고자, 이루고자 하며 이 모든 바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또는 흘러가지 않아 불 안과 두려움, 억울하고 화나는 마음 등을 가 지며 다시 괴로움 속에 빠집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내가 마음먹은 대 로, 원하는 대로, 뜻하는 바 모든 것이 이루 어지기를 바라고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함에 대해 의문을 잘 가지지는 않습니다. 즉, 그 저 뜻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해 한 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선대의 생각과 느낌, 그들이 써왔던 말이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습으로 내 마음 속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과 습은 결국 나의 삶을 이끌어 가게 되고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서 좀 더 나 아진 미래를 위하여 '살을 빼야지', '일찍 일 어나야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화를 내 지 말아야지'와 같은 새로운 결심을 하며 살 아가지만, 그럼에도 살아온 세월 속에 반복 된 학습을 통해 그동안 만들어진 나의 습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삶이 살아지지 않게끔 탄하고 괴로워는 할지언정 왜 삶이 내가 원 \_ 합니다. 결국 내가 형성해온 나의 습이 내가 \_ 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평소 자신이 행해오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지, 지금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을 방해하게 되고 습이 내 삶 던 습관대로 살며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 느끼고 있는 이 괴로움이 어디에서 비롯되 을 이끌어가는 주인으로서 작용하게 되는 다. 수행이란, 이러한 자신의 습을 바꾸는 것

그렇다면, 내가 살고자 하는 방향대로 살 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평소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면 화가 올라오는 순간 '아! 내가 지금 화가 올라오 고 있구나' 하고 나의 현재 상태를 알아차리 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의 현 상태 에 대한 알아차림이 잘 될수록 어느 순간 화 는 내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이러한 알아차 림을 통해 나와 나의 삶은 변화하며 이로써 나의 삶에 진정한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 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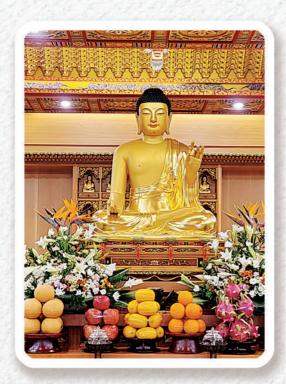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 으로 수행은 앉아서 생각과 말로만 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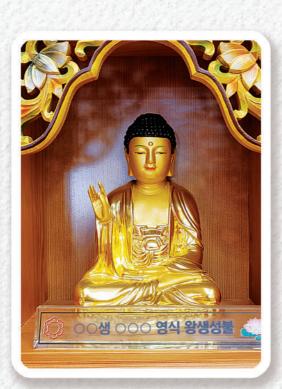
#### 불교(佛敎)의 목적(目的)

불교(佛敎)는 내세주의적(來世主義的)인 천상(天上)에 나는 것이 목적(目的)이 아니고 그것은 일종(一種)의 방 편(方便)이며 현세(現世)에서 자율적(自律的)이고 자주 적(自主的)인 승리(勝利)를 거두고 인생(人生)의 진리(眞 理)를 깨쳐서 절대(絶對) 안온(安穩)의 이상(理想) 세계 (世界)를 체현(體現)하는 것이다.

『종조법설집』 제3장 잠언편 중

# 진언 밀법도량 정각사 득락전





"현생에 이고득락, 내생에 왕생성불"

살아있는 중생은 이고득락을 얻고, 영식은 안식을 얻는 기도도량 진언생활 불교총지종 정각사

정각사에서는

조상님과 가족, 일가친척의 영식 천도불공과 개인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축원불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051-552-7901 / 부산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정각사)

# 한국전쟁, 외아들과 연락두절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만나다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17 화>

1907.01.29 경남 밀양 출생 1972.12.24 불교총지종 창종 종령 및 서울선교부 주교 재임 1980.09.08 입적(세순 74세)

대성사는 좌와 우의 대립을 넘은 곳에 부 처님의 가르침이 있다고 보았다. 평등을 주 장하는 좌의 입장과 자유를 앞세우는 우의 입지를 동시에 아우르는 길이 불교에 있다 고 간파하였다.

대성사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불교의 수행과 해탈에서 찾아냈다. 중도를 기반으 로, 세상이 고정된 실체 없이 인연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진다는 이치를 이해하는 지혜로 일체 중생을 위해 자비를 베푼다면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그것이 해탈의 길이 라는 것이다. 결국 불교를 통해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자유와 불평등의 모순이 사라지 는 새로운 길과 만난 것이다.

위태롭던 정국은 결국 전쟁이라는 파국을 맞게 된다.

광복과 분단으로 이어진 갈등의 골은 서 로가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전란의 비극을 가져왔다.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과 더불어 북한군은 걷잡을 수 없는 기세로 밀고 내려 왔다. 남한 땅 상당수가 북한군의 점령 하에 떨어졌고, 대성사가 있는 밀양을 지척에 두 고 최후의 방어선인 낙동강 전선이 펼쳐졌 다. 지축을 울리는 대포소리는 밀양에서도 생생히 들을 수 있었다.

전쟁 속에서 인간은 한 없이 나약한 존재 가 된다. 거칠 것 없는 폭력에 무방비로 노 출되고, 때로는 적과 동지 어느 편에 설 것 인지 선택을 강요받는다. 총알에는 눈이 없

고, 포탄에는 동정심이 없다. 누구라도 어디 서 날아올지 모르는 총탄의 두려움을 안고 견뎌야 한다. 전쟁은 세상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 대성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기를 만든 것도 한국전쟁이다.

개인적으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시름이 닥쳤으니, 절망의 순간이 왔다. 외아 들인 손순표의 소식이 끊긴 것이다.

당시 손순표는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지 금의 경영학과에 진학하였는데 전쟁이 예 고 없이 터진 탓에 미처 피난하지 못하고 행 방 또한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피난 온 친지들도 손순표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알 만한 곳에 물어도 소식은 닿지 않았고 그렇다고 적지인 서울로 찾아 나설 수도 없는 일이었다. 가슴은 타고 불안은 건 잡을 수 없이 커져 갔다.

사방에서 들리는 소문은 흉흉하기만 했 다. 사상을 의심받으면 처형당한다는 이야 기도 있었고, 북으로 끌려가는 이도 있었다. 더욱이 손순표는 어린 시절부터 활달하고 총명하게 자란지라 대성사와 집안에서 거 는 기대는 남달랐다. 해방된조국에서 열심 히 배워 큰 인물이 되겠다는 포부도 있었다.

그런 금쪽같은 자식이 온데간데없이 행적 을 알지 못하게 되자 대성사는 사방으로 소 식을 묻고 또 물었다. 피난 온 이들 중 고려 대학교와 조금이라도 인연이 닿을 만한 사 람이 있으면 어디건 달려가 아들 소식을 들 을 수 있을까 간청했다.

희망의 실낱을 한 가닥이라도 찾아 나섰 지만 어디서도 아들을 보았다거나 소식을 아는 이들이 없었다. 행적은 둘째치고 생사 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자 대성사 집 안에서는 외아들을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하 겠다고 마음먹었다.

대문을 활짝 열어 오고 가는 피난민들을 불러들여밥이라도 한 끼 먹이며 멀리 서울 과 피난 행렬의 소식을 물었다. 일부러라도 어려운 이를 찾아가 적선을 하여 티끌 같은 공덕이라도 자식의 앞길을 밝힐 수 있도록 하였다.

대성사는 금강관에게 무겁게 입을 열었다. "자식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밥이 입에 넘어가겠소. 오늘부터 어디든 나서서 찾아봐야겠소."

금강관 또한 이런 대성사의 마음을 헤아 렸다. 덕을 베푼다는 소식을 듣고 피난민들 이 몰려왔다. 이런저런 소식을 들었지만, 딱 히 실마리가 될 만한 것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참에 피난민으로부터 솔깃한 소문 을 들었다.

"저기 대구 밖에 용한 이가 있는데, 죽은 사람 소식이건 산사람 소식이건 모르는 게 없다고 합니다. 생사를 못 찾는 이들 여럿 찾았다고 해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그렇다고 무시 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급했다. 대성사는 한 달음에 그를 찾아가 아들의 행방과 생사 여 부를 물었다.

용하다는 보살은 대성사를 한참 바라보다 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좋은 소식은 살아 있다는 것이고, 나쁜 소식은 꼼짝 못하게 사방이 막혀 있다는 것 입니다. 덕을 많이 베풀고 부처님전에 간절 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관세음보살을 일심 으로 외우다 보면 머지않아 좋은 소식을 들 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종잡을 수 없는 말 한마디였지만 한 가닥 빛을 찾은 것 같았다.

이때부터 대성사의 일과가 달라졌다. 금 강관은 새벽이면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렸고, 대성사는 관세음보살 염송하기를 정오까지 그치지 않았다. 아침상을 들일 때 를 말고는 잠시도 그치지 않고 일심으로 염 송할 뿐 아니라 간간히 포행할 때도 마음을 다져먹고 일념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기도를 올린 지 삼절일이 되자 마음에 의 심이 사라졌고, 무거운 먹구름이 가셨다. 비 록 자식의 소식은 듣지 못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신이 생겼다. 더 이상 자식의 생사



대성사 유품 관세음보살도(역삼동 원정기념관 소장)

와 소식에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도의 든 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감응이 있었다.

간절한 기도는 대성사를 더더욱 불법으로 이끄는 계기가 됐다. 만주에서 모았던 불교 서적늘을 다시 펼쳐 부처님의 가르짐을 읽 고 새기기를 하루 일과의 전부로 삼았다.

관세음보살을 염송함으로써 자식뿐 아니 라 이 땅에서 전쟁으로 고통 받고 희생된 모

대성사 가족은 물론이고 인척과 이웃도 일념으로 관세음 보살을 염하는 대성사를 보고 따라 함께 기도하는 일이 늘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대성사 친인척과 그를 아는 밀양 사람들 은 대성사를 보면 당연히 "나무관세음보 살"을 외웠다고 한다.



# 불공은 자기가 하는 것, 같이 수행하고 함께 성도하자



#### 총지종의 역사

03. 밀엄정토의 기틀 확립 진호국가불사와 밀교 수행의 생활화②

####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진호국가불사

원정 대성사는 진호국가불사에 확고한 의 지를 보였다. 일찍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 립운동에 앞장선 부친을 가까이에서 지켜 봤고 전쟁의 참상 속에서 몸소 고통을 겪었 던 만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정성을 쏟았다.

밖으로는 남북한의 극한 대립과 위협으로 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안으로는 호국사상 으로 단결하여 국력을 키울 것을 발원했다. 삼국시대부터 외적의 침입이나 환란으로부 터 나라를 보호하려고 행하던 진호국가불 공을 도입하여 1975년부터 『수호국계주 다라니경』을 근거로 진호국가불사의궤와 '옴훔야호사' 진언을 채택했다.

그해 월남의 패망으로 국제정세가 불안정 해지고 국가안보가 크게 흔들리자 5월 5일 부터 일주일 동안 몸소 국가안보를 위해 정 진한 후 5월 12일부터 49일간 전국 사원에 서 일제히 진호국가불사를 올렸다.

부국강병 국태민안과 조국평화통일을 기 원하는 호국의 염원은 다음해부터 년 2회 개최하는 진호국가 49일 불공으로 정착되 었다. 불교의 안거제도와 연관 지어 상반 기는 2월 19일 입재하여 석가모니 부처님 의 탄신일인 4월 8일 회향하고, 하반기는 5 월 28일 입재하여 우란분절인 7월 15일 회 향하도록 날짜를 확정했다. 1976년 하반기 49일 불공 때에는 '한국유엔외교승리'를 서 원사항으로 추가하고 수호국계법(守護國 界法)을 진행했으며, 1979년 10월 23일 제 14회 강공회에서는 수호국계주진언과 함께 국가경제, 사원경제의 풍요를 기원하는 보 주수진언을 수행할 것을 결정했다.

국가적 숙원사업인 석유 등 광물자원의 성 회사와 삼밀행을 실천하라고 했으며 투명

취를 기원하는 보협수진언을 시행할 것을 선포했다.

이처럼 전 교도가 한마음으로 국가적 당 면 과제의 조속한 성취를 발원하는 진호국 가불공의 전통은 오늘날까지 면면히 계승 되고 있다.

#### 밀교 수행의 생활화

원정 대성사는 전통 밀교의식에 착안하여 실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행방편을 개발했다.

단중 서원지에 서원사항을 직접 적는 공덕 으로도 가피를 볼 수 있다고 가르쳤다.

3종의 서원지 외에 불법연구와 포교를 위 한 역경 및 불서 제작에 사용하는 정법시법 (正法施法)은 별도의 투명단중 용지를 제작 하여 시행했다. 각 사원의 정법시는 오직 법 공양에 사용하도록 하고 10월 30일 통리원 내에 정법시의 관리와 경전 연구, 불서 발간 을 총괄하는 법장원을 설치했다. 초창기에 는 전법과 교화에 사용하는 정법시를 종단 불서 발간에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및 불서 관리에 초점을 뒀으며 대성사의 연 구 및 번역 작업을 뒷받침하고 출간하는 데 주력했다. 법장원은 이후 종단의 밀교사상 적 가치와 수행의궤로 연구영역을 확대하 고 1985년 밀교연구소를 개설하여 전담 인 력을 확충하면서 한국밀교사에 있어 의미 있는 불서를 펴내는 기관으로 발전했다.

종단의 핵심 가치를 일상 속에서 다짐할 수 있도록 1976년 4월 20일 제7회 종의회



1975년 4월 24일 춘계강공에서 종조 원정 대성사와 스승들이 준제결인을 하고 불공 중에 있다.

## 정법시 관리와 경전 연구, 불서 발간 등의 총괄 법장원 설치 제11회 종의회, 스승과 교도 간의 인사법 '성도합시다' 의결

1975년 10월 29일 『불설대승장엄보왕 경』 작단법에 기초해 3종(식재, 증익, 경 애)의 서원지에 이름을 적어 단시함에 넣도 록 하는 투명단중법(投名壇中法)을 실시했

사종수법의 4색을 적용하여 식재법은 백 색의 종이에, 증익법은 황색의 종이에, 경애 법은 적색의 종이에 서원과 이름을 적어 희 사고에 넣고 진언염송을 하도록 했다.

밀교의 사종수법을 보시불공에도 적용했 다. 대성사는 교도들에게 무조건 사원에 와 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다. 각자에게 주어 진 일늘을 우선으로 누고 최선을 다한 다음 불공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원당에 1980년 4월 22일 제15회 종의회에서는 나와서 불공할 수 없을 때는 가정에서 매일

에서 성불서원을 확립했다.

불전에서 향을 올리거나 희사할 때 개인 서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합장한 채 '복지 쌍수하여 즉신성불하겠습니다' 하고 마음 속으로 서원하도록 했다. 이미 1972년 12월 24일 창종선언에서 복지쌍수하여 현세정화 와 즉신성불을 궁극의 수행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듯이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 이 세상을 불국정토로 만들고 지금 이 몸 그대 로 반드시 성불하겠다는 총지종 교도의 핵 심 서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1978년 4월 19일 제11회 종의회에서는 스승과 교도간의 인사법을 '성도합시다'로 확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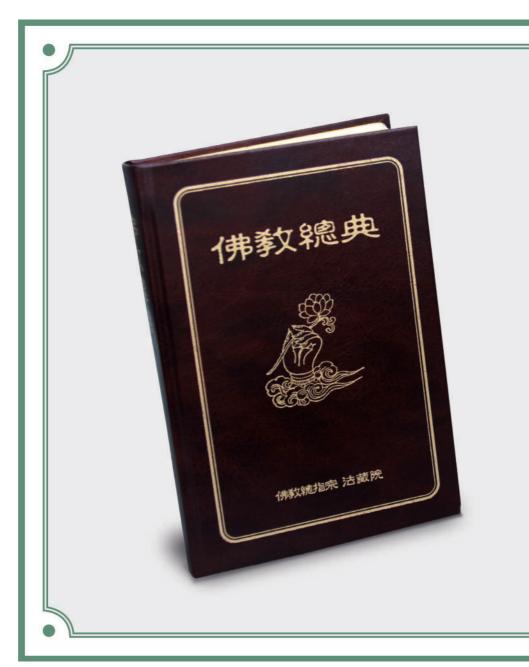
수행하고 다 함께 성도하자는 뜻을 명확히 (중략) 이것을 진언비밀보리도라고 함이니 하도록 했다.

그리고 신·구·의 삼업(三業)과 십악참회 (十惡懺悔)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관점의 신·구·의 삼밀(三密)과 십선성취(十善成就) 십선회향(十善回向)으로 전환하여 대승보 살의 실천상을 제시했다.

삼업을 정화하는 것이 곧 삼밀이니 즉 부 처님의 가지력과 관행자의 공덕력과 법계 의 통합력에 의하여 정화되는 것이므로 삼 밀관행으로 공덕이 일어나는 것이다. 좀 더 확대하면 불(佛)이 설한 진실한 일 실행함 이 신밀(身密)이요, 불(佛)이 설한 진실한 말 말씀함이 구밀(口密)이요, 불(佛)이 설한 자기 불공은 자기가 하는 것이니 다 같이 진실한 마음 가지는 것이 의밀(意密)이다. 중요한 불공을 할 때는 긴 의궤법으로 수행

이를 실수하여 본존의 삼밀과 행자의 삼밀 이 상응하여 평등법계를 자증하게 된다. 즉 우주법계의 일체형색은 법계법신의 신밀이 요, 우주법계의 모든 음성은 법신구밀설법 이며 형색음성 이밀에서 활동하는 그 진리 는 그 모두가법신여래의 의밀이다. 이에 대 한 행자들의 관행하는 삼밀행은 법신여래 그 삼밀이 행자 개체에 연기하고 분화하여 있는 것에 다름이 없는 까닭에 본존여래 삼 밀이나 관행자의 삼밀이나 본래 일여평등 으로 삼삼평등관이 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즉신성불이라 한다. 『종조법설집』「신구 의 삼밀」

1978년 10월 17일 제12회 종의회에서는 평소 생활 속에서 악행을 막고 선행을 실천 하는 방법으로 흑백두 수행법을 제정했으 며, 여러 가지 현세이익을 위한 복수정진과 함께 긴급하고 중요한 서원사항은 별도의 의궤로 단일정진하여 빠르게 성취할 수 있 도록 했다. 염송법도 3.7 의궤법, 7.21 의궤 법, 21.108 의궤법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하 여 짧게 불공할 때는 짧은 의궤법으로, 길고



##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 불교총지종「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정성준 교수의

## 일교 인물史

# 제14대 달라이라마 텐진 갸초(2)

달라이라마 14세의 어릴 적 이름인 하모 된둡이 고향을 출발해 라사에 도착하는데 는 석달이 걸렸다. 1940년 겨울 하모 된둡 은 포탈라궁으로 이동해 공식적으로 달라 이라마 13세의 환생으로 인정되었고, 1940 년 2월 22일 정식으로 즉위식을 가졌다. 하 모 된둡은 조캉사원을 방문해 정수리 머리 카락을 손가락만큼 남겨두고 삭발한 계사 로부터 나머지 머리카락을 잘라 정식으로 사미계를 받는 타푸의식을 진행하였다. 이 때 새로이 받은 이름은 '잠뻴 아왕 롭상 예 셰 텐진 갸초'였다. 이때부터 성하는 기초교 육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전통은 인도 나란 다대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은 석존께 서도 공부했던 인도 오방명의 일부인 논리, 예술, 문법, 약학 등이 포함되어 있고, 불교 철학으로 넘어와서는 계율, 구사, 현관장엄 론, 입중론, 논리학이 그 중심을 이룬다.

1950년 여름 티벳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 텐진 갸초가 머물던 놀부링까궁이 흔들렸 다. 이틀 후 티벳의 섭정 타트라는 캄 지역 정부로부터 중공군의 침략이 있을 거라는 다급한 전보를 받았다. 8만이 넘는 현대식 장비와 훈련받은 중공군이 8천5백명도 채 안되는 보잘 것 없는 방위군을 무력화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으며 이때부 터 티벳은 1959년 완전히 합병될 때까지 중 공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다. 11월초 암도 에 있던 텐진 갸초의 형이 라사에 도착했는 데 중공과 인접했던 암도지역은 이미 인민 재판을 비롯해 중공의 직접적인 간섭과 본 격적인 통제가 시작되었다.

사정이 급박해지자 텐진 갸초는 그의 나 이 15세인 당해 1950년 11월 17일, 놀부링 까 궁에서 티벳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로 자리에 올랐다. 달라이라마 14세는 죄수들 을 석방시켰다. 또한 새 수상으로서 승려인 롭상 따시와 재가자인 루캉와 2인을 임명하 였다. 달라이라마는 수상들과 상의 끝에 미 국과 영국, 네팔에 티벳의 원조를 구하는 사 었고 오히려 중공은 티벳지배가 공고히 되 고, 상당한 영토가 중공에 편입되었다. 급기 를 출발한 지 3주의 쉼 없는 탈출행로 끝에



달라이라마 14세의 즉위 직후, 1950년 11월 17일 포탈라궁((Photo/OHHDL)

야 1951년 5월 23일 티벳은 중공측의 위협 과 협박에 의해 17가지 조항에 강제 합의함 으로써 끝내 중공의 자치주로 전락하고 말 았다. 달라이라마 14세는 외부로는 중공의 완전 병합 압력을 누그러뜨리고, 내부로는 중공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진정시키는 양면의 고통을 마주해야 했다. 1954년 7월 부터 1955년 6월간 달라이라마 14세는 모 택동과 주은래, 등소평과 같은 중공의 지도 자들을 만나기도 하였다. 한편 달라이라마 14세는 1956년 11월부터 1957년 3월까지 인도를 방문하여 붓다 탄생 2500주년의 기 념행사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1958년 말 달 라이라마 14세는 정치문제와 별개로 겔룩 빠의 교과과정에 따른 사원대학의 모든 일 정과 과목을 수학하고, 마지막으로 최고 학 위인 게셰 하람빠의 시험을 치루어 합격하

티벳은 전통에 따라 네충이라는 수호존을 신탁으로 강림토록 하여 앞날의 조언을 구 하였다. 수호존은 지체없이 조국을 떠나라 는 답변이 돌아왔고, 드디어 1959년 3월 17 일 속인의 복장으로 변장한 달라이라마 14 세는 링린뽀체와 티장 린뽀체를 비롯한 왕 사와 고승, 정부각료 일부와 가속으로 구성 협상하려 했지만 서구의 태도는 소극적이 된 일행을 구성해 포탈라궁을 탈출하여 말 과 도보로 혼신의 탈출을 감행하였다. 라사

1959년 3월 31일 달라이라마 14세 일행은 드디어 인도 국경에 도착하여 인도정부 수 비대의 안내로 현재 인도 아누나찰 쁘라데 쉬 주에 해당되는 봄딜라에 무사히 도착하 였다. 4월 20일 달라이라마 14세와 인도정 부의 네루수상이 만나 달라이라마 14세 일 행에게 인도에서의 정착지와 이후 뒤따를 수많은 인도 망명 티벳인들의 정착촌 지원 에 협조하기로 약속하였다.

의학사(醫學史) 연구자인 이현숙 한국생 태환경사연구소장은 〈신라사학보〉에 실은 논문 「생태환경으로 본 신라멸망에 대한 시 론」에서 한랭건조한 기후변화와 천연두의 창궐로 통일신라가 몰락에 이르렀다고 최 근 주장했다. 불교학자로서 인류를 둘러싸 고 있는 자연기후와 전염병들이 불교문화 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새로이 연구해 볼 화제이다. 아마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 기에 풍작마저 따른다면 문화, 예술, 건축 등이 발전하고, 화려해질 것이다. 반면 전쟁 과 기근이 발생하고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 에는 밀교나 선불교와 같이 실용적이며 간 결한 이론과 수행체계가 보다 발전할 것이

본고의 주제인 밀교를 중심으로 역사적 추를 나란다대학과 티벳불교로 옮겨보면 티벳불교는 혹독한 기후와 불안한 정치적 변동을 극복하고 논리학과 밀교를 중심으



1959년 게셰 하람빠 학위 시험을 치루는 달라이라마 14세 텐진 갸초((Photo/OHHDL) 출처=달라이라마 홈페이지

로 실용성이 강한 독자적 불교를 세웠다. 특 히 15만 경권에 육박하는 삼장의 보고를 실 천중심의 도차제 양권으로 구성한 쫑카빠의 『보리도차제론』 과 『비밀도차제론』 은 인

류 정신문명의 보고라 일컬어도 부족함이 없 을 것이다.

티벳은 현재 나라를 잃었지만 왕실의 지 지에 힘 입어 불교교단은 오래도록 불교연

구와 수행에 몰입할 수 있었고, 인도 나란다 대학을 계승, 발전시켜 불교를 세계의 정신 적 스승으로 이끄는 새로운 운명을 수행하 고 있다. 티벳에 동정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많지만 밀교종단으로서 심오한 밀교수행의 깊이를 아는 단체보다 티벳불교의 역사와 비극에 대한 이해는 누구도 미치지 못할 것 이다.

	옴	훔	O‡	호	사		도		칭	찬
	Ч				랑		하	네	다	
	버	스	킹		4	체			오	오
	스		메	시		게				새
			0			바	라	밀		미
	원	두	커	叫		라		교	차	로
	보			자	수		보		ᄚ	
	대	법	원			아	리	수		파
	조		주	식			귤			상
모	필	기					마	이	사	풍

11면 가로세로 총지문답 정답



전화: 02-579-2249 휴대폰: 010-6350-5583 (백현일)

### 진각종 '참회를 통한 종단 화합, 혁신'

#### 회당 대종사 열반 60주년 기념사업 추진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2023년 종조 회당 대종사 열반 60주년을 기념하여 진각종 창종 정 신인 '참회를 통한 종단 화합, 혁신' 으로 새로운 진각 100년을 열어가 겠습니다."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가 지 난 달 20일 진각문화전승원에서 기 자간담회를 열고 연간 종책기조 발 표와 함께 2023년 주요 사업계획 을 공개했다.

진각종은 2023년 주요 사업으로 '울릉도 금강원 성지 조성 사업'과 '종조 회당대종사 열반 60주년 기 념사업'을 내걸었다. 특히 울릉도 가 회당대종사의 탄생지인 만큼 울 릉도 사동에 위치한 금강원 일대의 성역화 사업내용을 강조했다.

'울릉도 금강원 성지 조성 사업' 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회 당기념관', '명상 수련원', '회당 생 가 복원' 등의 시설 건립을 목표로 진행된다. 이미 지난 1월 통리원장 직속기구로 성지조성위원회(위원 장: 경일 정사)를 발족하였으며, 종 단 및 정부의 예산을 합해 70억 원 의 사업비가 마련된 상태다.

올해 3월부터 설계 및 토목, 도로 기초공사가 우선적으로 진행될 예 정이며, 2024년에는 '회당기념관' 을 전통한옥구조로 신축하여 의례 및 수행 공간을 새롭게 정비한다. 또한 '명상수련원'을 조성하여 진 각종만의 차별성 있는 진언명상 프 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2025년에는 회당대종사의 생가 를 울릉도 전통너와집 구조로 복원 함과 동시에 다도원과 자생식물원 등 조경시설 조성으로 금강원 일대 를 명실상부한 울릉도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종조 회당대종사 열반 60주년 기념사업'에서는 종조님 창 종 정신을 바탕으로 통리원 주관 총 16개의 신규사업과 각 지방교구별 총 58개의 기념사업을 진행한다.

도진 정사는 "진각종은 종조님과 부처님 가르침을 기반으로 대중들 과 함께하며 생활 속에서 깨우치는 밀교종단인 만큼, 이번 사업을 성공 적으로 진행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겠 습니다."며 의지를 밝혔다.

### 천태종 '소통과 공생' 사회 구축 목표

#### 대충 대종사 탄신 100주년 준비위 발족

천태종이 새로운 종무 기조를 다 지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은 지난 1월 31일 서울 관문사에서 신년 기 자간담회를 열고 주요사업인 '천태 국제다문화종합센터 착공'과 '대충 대종사 탄신 100주년준비위원회 발 족'을 공식화했다.

'천태국제다문화종합센터'는 다 양한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고 서로 간의 폭 넓은 소통을 위해 서울 천 태도량 명락사에 지어질 다문화 법 당 시설이다. 명락사는 다문화가정 과 탈북이주민, 이주노동자 등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다문화사찰이다.

천태종은 여기에 규모를 키워 지 하 4층 지상 7층, 연면적 2만3,000 ㎡(약 6957평)의 국제다문화종합센 터를 건립해 한국불자뿐만 아니라 이주민 불자들을 위한 각 나라별 사 찰 법당 및 신행 공간 조성으로 종 교가 갖춰야 할 사회적 책임과 역할

확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세부 설계가 마무리 되면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

이와 함께 천태종은 오는 5~6월 경 '대충대종사 탄신 100주년준비 위원회 발족'을 앞두고 있다.

천태종은 대충 대종사의 탄신 100주년인 2026년 1월 23일에 맞 춰 대충대종사의 족적을 살피고 추 모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총무원과 종의 회, 감사원을 중심으로 신도회가 동 참하여 준비위원회를 발족한다.

지속 사업 또한 계속 이어 나갈 예 정이다. '천태지관차법의 전승'사업, 'ESG 경영 선도'사업으로 종단과 사 찰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꾸준히 이 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 대상 역사탐 방', '제2회 천태문학상 공모', '제2 회 임진각 통일문화제', '백만독 관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

음정진 및 안거 주경야선 수행' 사 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무원 스님은 "자성을 밝혀 만인과 소통하고 공생하는 세상을 만들자 는 올해 종무 기조에 발맞춰 출가자 와 재가자가 힘을 모아 종단과 불교 발전에 진력하겠다."며 종무행정의 뜻을 밝혔다.

### 존재의 소중함, 어느 노스님의 가르침

오랜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찢어 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게 가난하고 궁핍하기 이를 데 없 는 한 가정에 어린아이가 태어났습 니다. 이 아이는 자라면서 가정 형 편이 너무도 어려워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림에 지치다 보니 아이는 배가 고파 온 종일 우는 게 하루의 일과 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아기의 부모는 늘 밤 낮으로 우는 아이를 달리 달랠 방법 이 없어서 우는 어린아이에게 그냥 늘 비이성적 방법인 회초리로 울음 번씩이나 부모로부터 회초리를 맞 대답하셨습니다.

이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배가 고 파서 울고 있는 아이에게 부모는 회 초리로 아이의 울음소리를 멈추게 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이 집 앞 을 지나던 한 노스님이 이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아이의 집으 로 천천히 들어와서 매 맞는 아이에 게 넙죽 큰절을 올렸습니다. 이 모 습에 놀란 아이의 부모는 스님에게 그 연유를 물었습니다.

"예, 부모님께서 저의 행동을 보고 매우 이상하게 느껴지셨나 봅니다. 이 아이는 나중에 자라서 정승이 되 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곱고 귀하게 잘 키우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서는 이 노스님은 홀연히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이 일이 있는 이후로 이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울어서 아무리 집안 을 시끄럽게 하여도 회초리를 들지 않고 정성을 들여 이 아이를 훌륭하 "스님, 어찌하여 하찮은 이 어 게 잘 키웠습니다. 훗날 그 아이는 을 멈추게 하곤 하였습니다. 현실이 린 아이에게 큰절을 하시는 것인지 자라서 어른이 된 후 정말로 백성들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님은 늘 그 스님의 높은 안목에 감탄하며 귀한 가르침 을 가슴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그 러던 어느 날 이 부모님은 감사 인 사도 드릴 겸 노스님의 그 신기한 예지에 대해 깨달음을 얻고 싶어서 노스님을 수소문하여 찾아가게 되 었습니다.

"스님, 외람되기는 하지만 스님 께서는 어찌 그리도 미래를 보시는 혜안이 넓고 높으며 깊으신지요? 스님 말씀 외에는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 아이가 정승이 되리라고 말하 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노스님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 시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돌중이 어찌 미래

물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를 보면 한없이 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도 하찮게 여기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볼품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법 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세상을 모르는 어린아이를 소중하고 귀하며 정승 같이 정성을 들여 키우게 되면 이 아이는 정승이 되지만, 하찮은 존재 로 생각해서 머슴처럼 키우게 된다 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도 머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 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 아이는 하루에도 몇 요?"라고 묻자 노스님이 이렇게 로부터 존경받는 훌륭한 영의정이 인간사의 세상의 이치라는 것은 모 잘 살고 못사는 것은 바로 우리들 사랑해 봅니다. 두 다 하나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 각자의 마음가짐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느 것 하 되지만, 아무리 귀한 존재라 하더라 나도 귀하지 않은 존재가 없으며 또 한 귀하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의 풀 한 포기, 나 무 한 그루, 사람 한 명도 귀하고 소 중하게 대해주어야 한다는 존귀한 가르침을 주는 이야깁니다.

깊은 학문을 섭렵하고 높은 인품 을 갖추어야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도 나누고 베풀 줄 알며, 또한 주변 이웃들을 공존과 공생의 대상으로 여길 줄 알 고 봉사를 삶의 철학으로 여기며 사 는 모든 분들을 신뢰와 존경의 시선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세상을 으로 바라보는 따뜻한 세상을 그려 를 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_ 살아가는 이치이니, 우리가 세상을 \_ 보면서 종지신문의 〈역삼한담〉을

시인, 전 동해중 교장 탁상달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 후원에 감사합니다

#### 1월 21일 ~ 2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 때 후원금 납부방법

-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7668610
- 우리은행: 122-177171-13-104예금주: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관성사	보명심	2/14	10,000	동해사	법선	2/20	10,000	세곡키움센터	이지희	1/25	50,000		노점호	2/16	10,000
현정시	우인	2/20	10,000		만보사	2/7	10,000	수인사	수인사	2/10	50,000	정각사	김점남	1/27	20,000
	공덕성	2/20	20,000	만보사	이종구	2/13	7,000	시법사	법상	2/14	20,000		안한수	2/5	10,000
	상지화	2/20	10,000		김정희	2/20	10,000		시법사	2/6	10,000		지인사	2/3	10,000
	수증원	2/20	10,000	밀인사	김재영	1/25	10,000		이순영	2/6	20,000	지인사	유지호	2/4	10,000
	밀공정	2/20	10,000	걸인사	정정희	1/31	5,000		실보사	2/7	10,000		유선호	2/4	10,000
	선도원	2/20	10,000	법천사	법천사	1/31	10,000	실보사	이순옥	2/7	10,000	초록어린이집	유지영	2/7	80,000
	법지원	2/20	10,000		박미경	1/25	10,000		서령	2/8	10,000	총지사	김정환	1/29	10,000
	일성혜	2/20	10,000	법황사	인선	2/20	10,000		혜원정	2/8	10,000		백귀임	2/10	10,000
기로스승	사홍화	2/20	10,000		정계월	2/20	10,000	실지사	황성녀	2/1	10,000		최영아	2/10	10,000
	안주화	2/20	10,000	H21	벽룡사	2/20	10,000		유승우	2/12	10,000		김정환	2/12	10,000
	진일심	2/20	10,000	벽룡사	묘원화	2/20	10,000		이도현	2/12	10,000		신현태	2/14	10,000
	시각화	2/20	10,000	볏고을	OLDIN	0/1	00.000		이루나	2/12	10,000	통리원	김평석	1/30	10,000
	최상관	2/20	10,000	어린이집	이민선	2/1	80,000		이서현	2/12	10,000	포레스타7 어린이집	최유정	1/26	80,000
	연등원	2/20	10,000	사원명 무기명	하명순	1/25	10,000	아동회관	진금선	1/25	80,000		무명씨	1/31	10,000
	자선화	2/20	10,000		이영애	1/26	50,000	어린이집 양지 어린이집		.,			강동화	1/31	10,000
	승효제	2/20	10,000		남영애	2/1	30,000		양지어린 이집	1/27	50,000	화음사	무명씨	2/3	10,000
	단음사	2/20	20,000		강숙자	2/6	10,000	운천사	운천사	2/6	30,000		무명씨	2/3	10,000
단음사	장정숙	2/20	10,000		최영미	2/10	50,000	일원 어린이집	하재희	1/25	80,000		무명씨	2/3	10,000
	하현정	2/20	10,000		김지은	2/10	20,000		구미자	1/31	10,000		박옥자	2/8	10,000
단향사	단향사	2/6	10,000		박필남	2/15	10,000		연명구	2/3	10,000		강승민	2/10	5,000
근앙시	이수형	2/9	10,000		정유빈	2/17	1,000		자석사	2/6	20,000	힐스어린이집	곽방은	2/10	80,000
덕화사	이진승	1/31	10,000	석관실버 복지센터	김용기	1/25	20,000	자석사	지현	2/6	10,000	*포항 대련리	등의그		
크丸시	법상인	2/14	20,000		나석원	1/25	50,000	<u> </u>	기서리	1/26				1/10	20,000
동해사	동해사	2/8	10,000	오선혜	2/1	10,000	어린이집	김선희	1/26	50,000	기로스승	총지화	1/19	20,000	
승에사	송인근	2/20	10,000	성화사	신정회	2/13	100,000	정각사	탁상달	2/10	10,000	관성사	보명심	2/14	100,000

### 박희승 교수의 불교로 여는 삶(14)

세상이 참 요상하다. 입춘이 훌 쩍 지났지만, 날씨는 여전히 겨울 이다. 그 사이 튀르키예(터키)와 시리아 지방에 큰 지진이 나서 수 많은 사람이 죽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 여 일어난 전쟁이 1년 가까이 계 속되어 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다. 러시 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계기로 세계는 다시 냉전 체제로 가고 있 다고 전문가들은 평한다. 오랫동 안 중국과 이웃하여 살아온 한국 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참으로 어려운 처지가 되었다.

이런 국제 환경의 변화 속에 나 라 안으로는 난방 가스비 폭등으 로 추운 겨울이 더 춥게 느껴졌다. 도시의 크고 작은 사찰도 가스비 로 겨울을 힘들게 보냈다. 여기에 어떤 30대 직장인은 퇴직금을 50 억을 받은 것이 탄로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보니 국회의원이었 고,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지낸 고 위공직자였다. 검찰은 아버지를 구속 수사하여 재판을 했는데, 재 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세상에 30대 직장인이 누가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는단 말인가? 해외 토 픽감이다.

반면에 어떤 버스 기사는 7년 동 안 다니던 회사에서 커피를 먹기 위해 800원을 횡령했다고 해고당 한 것이 억울하여 재판을 했는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이 났고, 그 판사는 대법관이 되었다. 800 원을 횡령한 가장은 일자리에 쫓 겨나 가족들의 생존권을 위협 받 는데 아들이 50억을 받은 고위 공 찌 이리도 불공평하단 말인가?

## 세상살이가 괴롭더라도 부지런히 정진해야 한다

66

이 세상의 고통 받는 모든 이를 연민하고 그분들을 도우면서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켜 공부하고 정진해야 한다.

99

의 불공평과 불의를 간파하시고 사바세계를 고해(苦海), 괴로움의 바다라 하셨다. 진리를 알지 못하 고 이기심과 욕망으로 사는 이들 에게 세상은 괴로움의 바다와 같 다고 하신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기심으로 불의를 자행하는 사람 만 있는 것 이 아니다. 튀르키예-시리아 대지 진으로 파괴된 건물 잔해 속에서 한 엄마는 18개월 아기를 보듬고 버티다가 56시간 만에 구조되었 다. 세계 각 국에서 지진으로 실의 에 빠진 튀르키예-시리아 사람들 을 돕기 위해 나섰다.

우리 나라도 튀르키예를 돕기 위해 재난 구조대원들이 파견되 었고, 자발적인 국민들의 기부가 줄을 잇고 있다. 우리 한국은 이미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고, 구 매력 기준으로는 일본의 경제력 을 넘어섰다고 한다. 특히 한국의 문화 수준은 세계 선도국가가 되 었다. BTS를 비롯한 아이돌 그룹 직자는 무죄를 받으니 세상은 어 의 K팝은 세계 젊은이늘의 열광 적인 팬덤을 가지고 있고, 영화와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이런 세상 드라마 분야에서 가장 주목 받는

나라가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반 도체, 조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지 위에 있고, 에너지 분야에서 각광 받고 있는 2차 전지 분야에서도 최고 기술력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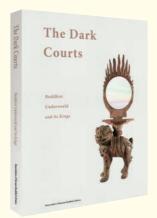
이제 우리도 남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될 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 었다. 세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 히 하는 경제력, 문화 역량을 가 진 나라가 되었다. 한국인의 능력 과 성취를 세계인은 부러워하고 존중하고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을 스스로 비하하거나 정치 지도 자들의 이기주의와 편견에 찬 선 동에 휘둘리지 말고 정견을 굳건 히 해야 한다. 비록 정치지도자들 의 못난 모습이 보일지라도 실의 에 빠지지 말고 깨어있는 시민의 식으로 바르게 나아가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고해라 하 시면서도 그 해결 대안으로 생사 윤회의 괴로움에서 영원히 해탈 하는 깨달음을 제시하셨다. 이것 이 부처님이 제시하신 깨달음으 로 통한 영원한 대자유의 길이다. 이것이 불교의 지혜이다.

우리는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괴 로워하고 불평불만만 할 것이 아 니라 이 세상의 고통 받는 모든 이 를 연민하면서 그분들을 도우면 서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켜 공부 하고 정진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세상에 분노하고 한탄하여 좌절 에 빠지거나 세상을 등지고 허무 주의에 빠져 생을 허비하게 되면 악업을 더 지어 생사 윤회의 고해 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을 것 이다. 세상이 괴롭다면 더욱 더 부 지런히 정진해서 해탈의 깨달음

> 박희승 불교인재원 교수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





### The Dark Courts

Buddhist Underworld and its Kings 어둠의 법정-불교의 지하세계와 그 왕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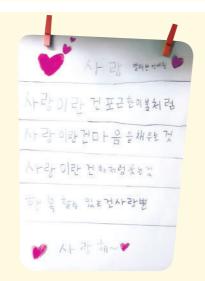
원고 노승대 **번역** 홍희연 **판형** 188\*250mm 208쪽 발행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비매품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진우 스님)가 지난 달 27일 한국불교를 소개하는 외국어 책자 <The Dark Courts-Buddhist Underworld and its Kings, 어둠의 법정-불교의 지하세계와 그 왕들>을 발간했다. 협회 는 2008년 <한국불교> 중문·일문판을 시작으로 매년 한국불교문화를 외국인에게 소개하는 단행본을 기획 및 제작하며 16년째 포교사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번 책은 16번째 발간하는 책으로 죽음과 죽음 이 후의 세계에 대한 불교문화이야기를 다룬다. 불교의 사후세계관에 등장하는 '시왕, 지장신앙' 등을 통해 불교의 생사(生死)에 관한 교리와 세계관을 소개하 고, 수륙재와 사십구재와 같은 역사적 문화적인 내용 까지 폭넓게 담았다.

특히 불교의 사후세계에 대한 주제가 최근 '도깨 비', '신과 함께' 등 K-웹툰이나 영화, 드라마 소재로 자주 쓰이고 있는 만큼, 내국인과 외국인 독자가 함께 읽을 수 있도록 국문과 영문을 동시에 실어 발간의 의 미를 더했다.

책의 원고는 <사찰에는 도깨비도 살고 삼신할미도 산다>, <사찰 속 숨은 조연들>을 쓴 노승대 작가와 불교 전문 통·번역가인 홍희연씨가 진행했다. 책은 총지신문 편집실을 통해서 받아 볼 수 있으며, 국내, 해외 사찰을 비롯해 국내 주재 공관과 해외 한국문화 원 및 도서관 등 전 세계로 배포될 예정이다.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일원어린이집 열매반 장예원(7세)

사랑이란 건 포근한 이불처럼 사랑이란 건 마음을 채우는 것 사랑이란 건 해처럼 웃는 것

행복할 수 있는 건 사랑뿐

	불교서적 월간베스트(2/1~28)									
			제공 : 도서총판 운주사							
순위	도서명	출판사	저자							
1	연기와 공 그리고 무상과 무아	운주사	홍창성							
2	무비 스님의 천수경(개정판)	조계종출판사	무비 스님 지음							
3	중론:산스끄리뜨 게송의 문법해설을 겸한	오타쿠	용수 지음/청목 주석							
4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1)	선요가	아헹가/현천 역							
5	초기불교 이해	초기불전연구원	각묵 스님 지음							

# 불교총제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불공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종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매년 양력 7월 15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해탈절(우란분절)						
종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새해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기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상반기, 하반기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훔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진호국가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월초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_ 0 .0				
사원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구경북교구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수련원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88	(043)833-8133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동부동)	(054)772-8776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3452-7485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성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110340177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경길36-19	(054)745-5207
		서울경인교구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숭인동)	(02)762-1412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부산경남교구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15	(055)644-5375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량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1 (초량동)	(051)468-7164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충청전라교구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중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 노래로 정진, 소리로 공양, 법음으로 자비를…

### 다시 움트는 마니합창단·만다라합창단·부림합창단, 단원 모집도

"지장보살 영접 받아 서방정토 왕 생하여 아미타불 친히 뵙고 부디 성 불하고…"

지난달 19일 총지사 서원당에 울 려 퍼진 마니합창단의 '무상게'는 마지막으로 벗을 떠나보내는 애틋 함과 영식 왕생성불의 간절함에 동 참대중의 눈시울과 가슴을 적셨다. 노래는 닫힘을 열어주고 때론 맺음 을 풀어주는 힘이 있다.

코로나로 실타래처럼 엉켜있던 일상과 교화의 장을 오직 부처님의 음성으로 진리의 빛을 향해 나아가 고자 불교총지종 전국의 합창단이 다시 움트기 시작했다.

서울경인교구 마니합창단, 부산 경남교구 만다라합창단 그리고 사 원 유일의 마산 운천사 부림합창단 이 본격적인 연습과 대대적인 단원 모집에 나섰다. 이들 합창단은 불공 올리는 지극한 마음으로 음성포교 를 통해 진언밀교의 감동을 전해주 고 있으며, 종단과 교도들의 애경사 뿐만 아니라 사원에서 행하는 자비 실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교화를 뒷받침해오고 있다.

마니합창단은 올해 마니합창단 단독 공연을 목표로 최해선 단장을 비롯한 25명의 단원이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총지사에 서 연습을 하고 있다. 최 단장은 전 국불교합창단연합회 감사와 서울경 기남부합창단연합회 부회장을 맡아 이웃 종단과의 친선과 연대를 통해 종단 홍보에도 앞장서고 있다.

창종 초기부터 활동을 시작해온 만다라합창단은 지난 2019년 챔버











부산경남 반다라합창단









마산 운천사 부림합창단







지휘자 박건우

오케스트라를 구성하여 음반을 낼 정도로 단단한 실력과 불심을 가지 고 있다. 현재 안미옥 단장을 필두 로 총 30명의 단원이 매주 화요일 10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정각사 에서 정기연습을 갖고 있다. 해마다 가을에 열리는 부산불교합창제를

운천사의 자부심 부림합창단은 종단에서 가장 늦게 출발한 합창단 이지만 사원의 교화와 교도의 신행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49재 에서 조가를 연주하는 등 불사와 사 원 행사를 지원하고 지역 행사의 합 창공연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오

목표로 활동 중이다.

고 있다. 조정애 단장과 단원 20명 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2시 간 동안 법음을 울리고 있다.

전쟁의 승리에는 늘 명장이 있듯 이 이들 합창단을 명품으로 완성시 키는 지휘자가 있다. 마니합창단 김 양희 지휘자는 오페라 '야수다라와 아난다의 고백', '아미타불', '오세 암' 등의 프리마돈나 출신이다. 어 린 시절부터 찬불가를 통한 불음 포 교의 원력과 신심을 키워왔다. 만다 라 합창단 지휘자 박윤규 바리톤은 러시아 볼고그라드국립음악원 성악 을, 단국대 음악대학원에서 합창지 휘를 전공했다. 부림합창단 박건우

지휘자는 오랜 총지교도로서 '연꽃 잎', '부처님 마음', '우리가 만나면' 등의 작사·작곡가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공연기획자이자 대중음악 예 술가다. 이들이 단원과 반주자와 합 을 맞춰 향기로운 하모니를 완성시 키고 있다.

노래를 통해 정진하고, 소리를 연 주하여 삼보에 공양하고, 법음으로 자비를 전하고 싶은 교도나 일반인, 지역과 사원에 관계없이 누구나 합 창단에 지원이 가능하다.

> 마니합창단 02-552-1080 만다라합창단 051-552-7901 부림합창단 055-223-2021

# 경륜·재능 나눔의 어르신 봉사단 결성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우인 정사)이 운영하는 성북구립석관 실버복지센터(센터장: 나석원)가 지난 7일 지역사회 내 어르신의 사회참여 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석관지니어스봉사단' 2기 발대식을 개최하였 다. 이 날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봉사단원에게 각각 단복과 배지, 임명장을 수여했다. 나 센터장은 "석관지니어스봉사단이 주도적으로 재능 나눔을 펼 쳐 어르신들로 인해서 희망이 전달 되고, 스스로 행복한 노년이 되실 수 있 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고맙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돕기

혜정사

수증원 전수 진일심 전수 혜정사신정회 이용순 최영례 박순희 박영순 김경순 김추자 정혜희 정은선

#### 축하합니다

총지사

1월 29일, 아기(박서아) 탄생 조민희 교도 차녀 출산 (안지애 보살 외손녀)

#### 총지스케치



본지 '총지스케치'의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재능 기부를 해온 김홍균 교도가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붓을 내려놓습니다. 총지사 김 교도는 총지종보 219호(2018 년 2월 호) 총지만평에서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5년 여 동안 61편의 화폭 안에서 많은 스토리와 감동을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 호를 즈음하여 미루어 두었던 감사의 뜻을 전 독자를 대신하여 전합니다. 편집자 주

### 일원·초록어린이집 교직원 합동연수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 장: 우인 정사) 산하 일원어린이집 (원장: 하재희)과 초록어린이집(원 장: 유지영)이 공동으로 교직원 합 동 연수를 실시했다.

참여자들은 '우리는 한 팀이다!' 를 슬로건으로 토요 휴무를 반납한 채 2월 4, 18, 28일 3회에 걸쳐 오전 부터 오후까지 교육에 참여했다.

영유아 문제 행동 지도, 아동학대 및 아동 성폭력 예방, 컵케익 떡 만 들기 등 실사구시적인 강좌뿐만 아 니라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대한 인문학 강좌 등 수준 높은 프 로그램으로 이어졌다.

박재원 기자

### 가로세로 총/지/문/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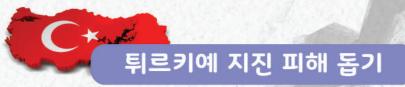
#### 가로 열쇠

- ① 불교총지종에서 '진호국가불공'시 국태민안을 기원하며 외우는 진언
- ② 00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 ③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여는 공연
- ④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대작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 ⑤ 생멸, 변화하는 모든 것의 다섯 요소(색수상행식)
- ⑥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를 우승으로 이끈 세계적인 축구천재
- ⑦ 보살의 수행, 마하반야000
- ⑧ 커피 열매를 볶은 후 분쇄한 가루를 기구 사용으로 추출하는 커피
- ⑨ 도로들이 교차하는 지점
- ⑩ 범죄자가 수사 기관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
- ⑪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자 법원
- ⑫ 고구려때 한강을 부르던 말로, 서울시 수돗물 이름
- ⑬ 주식회사가 만들어 파는 증서,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
- ⑭ 답안을 글로 써서 치르는 시험
- ⓑ 말의 귀에 동풍이 불어도 말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뜻

#### ⑩ 도쿄 시내와의 거리가 가까운 일본 1위의 국제공항

#### 세로 열쇠

- ⊙ 몇 개의 독립된 이야기를 모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든 극의 한 형식
- ⑥ 사랑을 느낄 만한 나이에 나는 이
- © 카타르의 수도
- ② 맥주로 유명한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 도시
- 由 남을 권좌에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지닌 실력자
- 📵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매력적인 공산주의 혁명가
- ☼ '언제나 변함없이', '자연 그대로의'라는 뜻의 순우리말
- ⑥ 대일여래의 비밀스런 가르침
- ☞ 격파, 차 끌기, 쇳물 머금기 등의 힘과 기합으로 하는 묘기
- ☞ 도미노, 미스터, 파파존스, 00헛
- ③ 원본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는 사본
- © 강원도 남서부 위치한 시(市), 치악산 구룡사, 소금산 출렁다리
- ੰ 중국 선종의 개조, 불가의 그림 '달마도'
- ❸ 상처 부위에 증식한 균이 번식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감염성 질환



# 권 선 문

성도합시다. 최근 지구촌은 튀르키예 지진으로 발생한 대규모 인명피해로 충격과 비통속의 나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부 국경 지역에 규모 7.8의 강진과 여진으로 건물과 가옥이 무너지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지진으로 붕괴된 건물에 매몰된 실종자가 20만 명 이상이며, 역사상 최대 인명피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불교총지종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력으로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피해 국민들이 하루속히 재난을 극복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보시에 세 가지가 있으니 식시(食施)와 재시(財施)와 법시(法施)이다. 식시는 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요, 재시는 가난한 사람에게 재물로서 도우고 국가 사회의 복지 사업에 희사하는 것이요, 법시는 모든 중생을 부처님 법으로 인도하는 것이다."고 밝히시고, "인간은 사회성(社會性), 연대성(連帶性)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남을 도우는 것이 곧 자기를 도우는 것이다."고 설파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업중생이며 서로 연관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교총지종은 종조 원정 대성사님의 중생구제와 불국정토의 건설이라는 대원에 의지하여 부처님의 대자대비심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보듬어 안고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물심양면으로 돕고자합니다. 우리 교도들이 나서서 마음과 마음을 서로 나누어 용기를 전하고, 내 자신의 복덕을 증장하는 희사가 되기를 권선합니다. 옴마니반메훔

## <u>튀르키예 지진</u> <u>피해 돕기 성금 계좌</u>

우리은행: 1005-503-240942 예금주: (재)불교총지종유지재단 ※ 입금 시 사원명 기재(예: 총지사 아무개)

